

한라시론



김재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지난 3월 14일 '초고령사회, 제주 선배시민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1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이 개최되었다. '선배시민'이라는 용어의 흥미로운 때문인지, 노인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긍정적인 인상과 느낌을 주어서 그런 것이지만 주제에 대한 지역 내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상황으로 노인 세대의 새로운 역할과 활동에 대한 고민이 주요 현안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다.

'선배시민'은 노인을 바라보는

빛나는 제주, 빛나는 선배시민

관점을 No人에서 Know人으로 전환하는 담론이다. 현대산업사회 이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느낌은 비생산적, 의존적, 쓸모없는 등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이 자리잡았다. 과거에 노인은 빈곤한 돌봄의 대상이자 시혜적·수동적 정책 대상이었다. 하지만 나이 들은 삶의 연륜과 경험을 지남을 의미하고, 최근 젊은 노년층은 은퇴 후 사회적으로 물러남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려는 욕망이 크다. 선배시민은 노인 세대가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담론이다. 이 담론에서 노인은 오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의무와 권리를 지닌 당당한 주체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이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던지

고 선배시민 관점을 적용한 노년 세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에서도 선배시민 담론과 연계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이 더욱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 개인의 삶을 위한 여가를 즐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배시민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 단위가 환경오염, 돌봄 등 다양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함께 교류하는 활동과 기회 역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경험하고 살아온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더욱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선배시민 지원 조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천시, 충북 진천군, 총 3개 자치단체에서 마련되었다. 제주에서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활동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선배시민은 청소년·대학생 후배시민들로부터 "선배님 너무 멋져요!"라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선배시민 활동은 지역 내 세대통합을 이루고 세대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후배시민들이 선배시민에게 "멋져요", "존경해요"라고 하는 제주 사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해본다. 빛나는 제주에 걸맞은 선배시민들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한다.

편집국 25시

저출산 시대의 행복법



강다혜 교육문화체육부 기자 dhkang@ihalla.com

'저출산 극복'이 희대의 숙제로 떠오르면서 대부분의 정책들 역시 결혼과 출산 가능성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출산 의사를 갖게끔 간간 힘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서 삶의 시계를 살펴보자. 대학과 취업 판관을 뚫고 직장에서 간신히 자리를 잡고 나면 30대 초·중반이다. 이때부터 최대 안정적인 임신 시기는 대략 4-5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모자란 급여를 받고 있지만 경력을 쌓아 나가는 기쁨도 소소하고, 머릿속엔 오늘 할 일과 먼 미래에 무얼 할까에 대한 생각뿐이다. 가임기 시

계가 운명의 시간을 지나는 사이 이런 고민만을 하는 청년을 두고 출산이라는 희대의 숙제를 저버린 이기적인 젊은이라 일컫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통계와 인류의 영속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이타적인 것인가? 기나긴 협박에도 결혼과 출산이 가능함과 동시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30대 여성에게 와닿지 않는다. 지금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자립을 하기까지 대략 30년이 걸릴 테고, 그 30년은 지난 세기의 300년과 같은 텐데. 80대 노인이 로봇과 함께 웬만한 일은 거뜰히 해내고 있을 텐데. 이제 결론이 나온다. 저출산은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이 사회에 현명하게 적응해 내린 결론일 뿐이라는 것. 이런 마당에 지금 모자란 건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 부족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 부족을 고민해야 할 때다.

뉴스-in

김동연 지사 "경기도민과 4·3정신 기릴 것"

우호증진 의미 기념식수도

○...제주도가 제주4·3의 가치와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화합 및 평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3일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동행.

오영훈 제주지사도 김동연 지사는 4·3평화공원에서 함께 현화·분향한데 이어 기념관 인근에 경기지사의 방문을 기념하고 양 지자체의 우호 증진의 뜻을 담아 경기도를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기념식수로 식재.

김 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국가폭력으로 인한 4·3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4·3추념식 참석을 계기로 경기도민들과 함께 4·3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 팸투어 "올레길·바다 매력"

○...제주도상하이관광홍보사무소와 제주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 우한지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중국 특수목적 관광객(SIT)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추진.

도내 아웃도어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된 이번 팸투어는 웨이보·더우인·샤오홍수 등 중국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웃도어 인플루언서 8명이 참여했으며, 이 기간 SIT 콘텐츠 홍보를 위해 올레길(15B코스) 트레킹, 참돔 낚시, 명상과 요가 등 웰니스 체험상품과 최근 공개한 벚꽃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도 소개.

팸투어에 참여한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올레길은 그 자체가 힐링에 최적"이라며 "제주 바다의 이색적인 풍광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전언.

사설

'4·3의 아픔' 보듬고 희망찬 미래 일구자

제주4·3이 76주년을 맞았다. 올해 제주4·3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3일 제주4·3 평화공원에서 거행된 4·3 추념식에 국회의원과 정당대표 등 중앙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찾았다. 정치권 뿐만이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식에 참석해 4·3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추념사에서 "정부는 올해 초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비롯없이 마무리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희망찬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과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한다.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죽어 나갔다. 반세기 가까이 '제주4·3'은 입박에 내뱉지 못하는 금기어였다. 죄없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억울하다'는 하소연조차 못하는 기막힌 역사였다. 특히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달리 위로한 것이 아니다. 4·3 광풍에 '억울한 희생자'로 묻히는 사례가 없도록 함께 보듬어야 한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상흔을 돌보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요 책임이다.

개발사업장 투자를 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건설공사 투자가 늘어나면서 건설경기 회복이 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하루 1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장 내 건축허가 증대로 올해 7개 신규 건축공사가 착공할 계획이며, 투자비는 5130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내역은 식물관 등 들어서는 묘산봉 관

속대책은 행정의 몫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만783명을 기록했다. 하루 1만 명을 넘기는 것은 사대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이후 7년여 만이다. 대형 크루즈의 방문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영향이다. 국제선 항공편이 확대되면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관광과 건설은 1차 산업과 함께 제주지역경제의 핵심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투자심리 회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급선무다. 경제주체들이 협업을 통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인센티브 예외특혜의 경제상황이 닥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한진구(1937. 11. 11. 생)
· 최후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중로 28 (토평동)
상기자는 2023년 11월 2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4년 3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4나단 2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2696-987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복슬고비새는 곳에
우리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특별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강지아 (1981년 6월 23일 생)
· 최후주소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56번길 10 (고성리, 동명아파트) 가동 305호
상기자는 2014년 12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4년 4월 1일 제주지방법원 2024나단 10136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주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왕칠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이며 최고의 약용식물임
왕칠나무의 효능
★ 혈액순환 촉진 ★ 갱신기능 개선
★ 생육 촉진 ★ 항암·항산화 효과
왕칠발효액의 효능
★ 소화 흡수를 상승 ★ 고기 특유의 냄새 중화
★ 요리시 원액 : 물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16시간 이상 침적할 경우 목질이 부드러워 고기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킴
★ 음용시 원액 : 물 혹은 커피, 요구르트 등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수시로 드시면 좋음
왕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濟大수의학과를 70대 수의사(김상홍) 개발중
문의전화 010-5169-4520

척추 허리골반
중풍마비(실어증), 어깨, 엉치, 다리통증, O.X다리, 키크기, 성장 교정
1회 체험으로 대만족
Snpe, 활력도비술, 정통고려합법전승계승자
대한합법연맹
010-7121-8275